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신청서 이번 주 제출

강기정 시장 “무안공항 재개항 늦어져 관광업계 큰 피해”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중단된 국제선을 다시 운항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강기정 시장은 1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이번 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달 무안

공항 개항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여부를 검토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무안공항 폐쇄가 3개월 더 연장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이 필요하다고 국토부 등에 건의했지만 신청서 제출은 보류했다. 광주시가 이번 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국제공항 필수요소인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이 광주공항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방부 등과도 논의한다. 검토 기간은 최소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시는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계획 등이 최소 3개월 이전부터 확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제선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오는 10월 이후 단계 시점부터는 운항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무안공항 재개항이 7월 이후로 미뤄져 지역 관광업계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광공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기 기자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광주시 인력지원센터 운영

광주시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농번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남구(대촌농협)와 광산구(평동·동곡농협)를 거점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개소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력중개센터에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 가능인력을 모집, 인력 부족 농가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농가 등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중개 대상으로 정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참여 농가에 현장 실습교육비, 농작업자에게는 교통·숙박비, 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해당 농가가 직접 지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일손 부족농가 1255가구에 2290명의 농작업자를 연계하는 등 연인원 2만824건의 인력중개 실적을 거뒀다. 남백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희인력을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상생모델”이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희생자 추모 김영록 지사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을 찾아 추모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갖고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독립국가연합 시장개척단, 152만달러 수출 성과

자동차심장충격기·피부미용기...몽골·카자흐스탄 수출

광주시 ‘독립국가연합(CIS) 해외시장개척단’이 152만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 해외시장개척단이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상담 109건·977만달러, 양해각서(MOU) 11건·140만달러, 수출계약 2건·152만달러를 체결했다. 독립국가연합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991년까지 소

련연방의 일원이었던 독립국가 11개국이다. 수출상담회는 고환율,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대응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광주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개최했다. 광주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 중소기업 10곳과 ‘독립국가연합 해외시장개척단’을 꾸렸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자동차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나눔테크가 142

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화장품 제조하는 라피네제이는 1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LED피부미용기기를 제조하는 소프트웰스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각각 51만달러, 200만달러의 수출상담을 이끌어냈다.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제조업체 원솔루션도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각각 14만달러, 125만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보였다. 광주시는 이번 수출상담·협약 성과가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물류비, 해외지사화, 무역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nam.co.kr

위기 임산부 24시간 원스톱 상담·지원 출산·양육·법률·의료·심리 서비스 제공

광주시가 위기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원스톱 상담소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엔젤하우스’를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스톱 상담체계는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등 유사 사건을 예방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이다. 엔젤하우스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명, 혼인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상담전화(1308)가 운영되

며 출산·양육 정보 제공, 법률·의료·심리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등 다양한 형태로 비밀상담도 가능하다. 병원 동행, 분만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해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산전·산후 보호, 양육 지원, 일상생활 지원, 진로 자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엔젤하우스는 지난해 7월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30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 370억 들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 첨단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37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03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방지를 위한 차

선이탈 방지 장치 692대도 지원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1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4개소, 마을진입로 과속 방지시설 5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13개소 등 첨단 안전시설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총 136억 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5개소를, 회전교차로 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 81개소, 시야 확보 표지판 230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호 기자

전세 피해자 지원 본격화...1차 6500만 원

5월30일까지 추가 접수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지원에서는 피해자로 확정된 총 65명에

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6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각 시·군에서 개별 접수했으나, 최근 전남도 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에는 센터에서 직접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추가 신청은 5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중이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